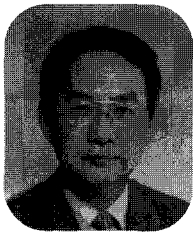


국내 양돈산업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



정 찬 길 교수
건국대 축산대

1. 양돈산업의 내·외적 생존권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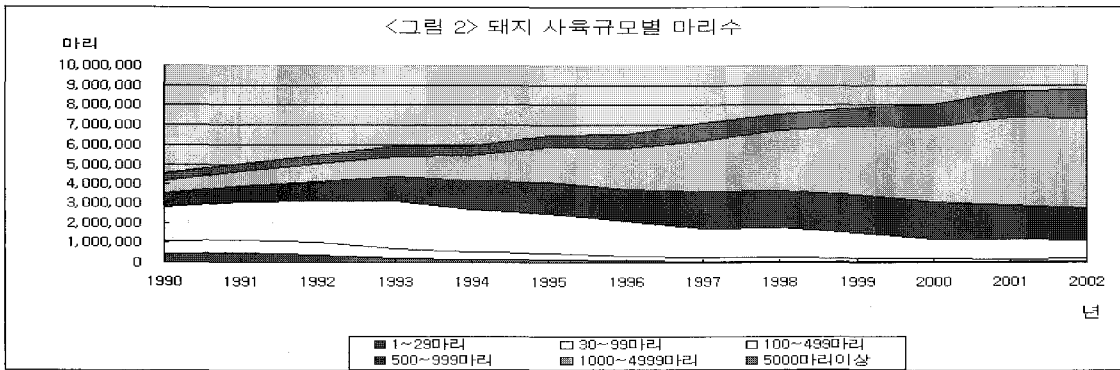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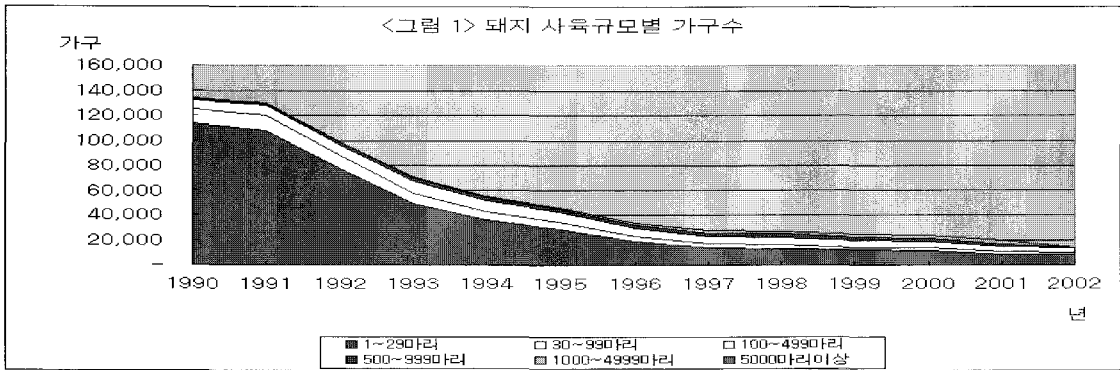
지금 양돈산업은 심한 가격변동에 의한 경영불안정, 사료비 통제력 부재, 환경규제 심화, 높은 생산비로 경쟁력 저하,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에 의한 생산기반 약화,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강화, 돈육시장의 세계화, 정부의 지원과 개입 축소, 전문 생산자 조직의 축소와 기능 약화 등 양돈산업은 내·외적으로 생존권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2. 국내 양돈산업의 구조적 변화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더 전문화된 돼지생산이 가속화되어 소수 양돈농가에 의한 다두 사육체제가 급진되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16,150농가가 9,027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에 70.2%의 농가가 양돈산업을 떠났으며, 호당 사육규모는 5배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전업규모 주도적 돼지생산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그림 1>

어떤 농가들이 양돈산업을 떠나고 있는가? 물론 소규모 농가들이다. 1994년이래 양돈산업을 떠난 38,085농가들 가운데 대부분 농



가들이 100두 이하를 보유한 농가들이었고, 나머지는 500두 이하를 보유한 농가들이었다.

특히, 최근 돼지보유두수 28.5%가 1,000두 이하의 사육 규모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다.

이 규모는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생산공헌도 역시 크게 상실할 것이다. 1,000두 이하의 82.0% 양돈농가가 28.5%의 돼지를 사육하고, 1,000두 이상 18.0%의 양돈농가가 86.5%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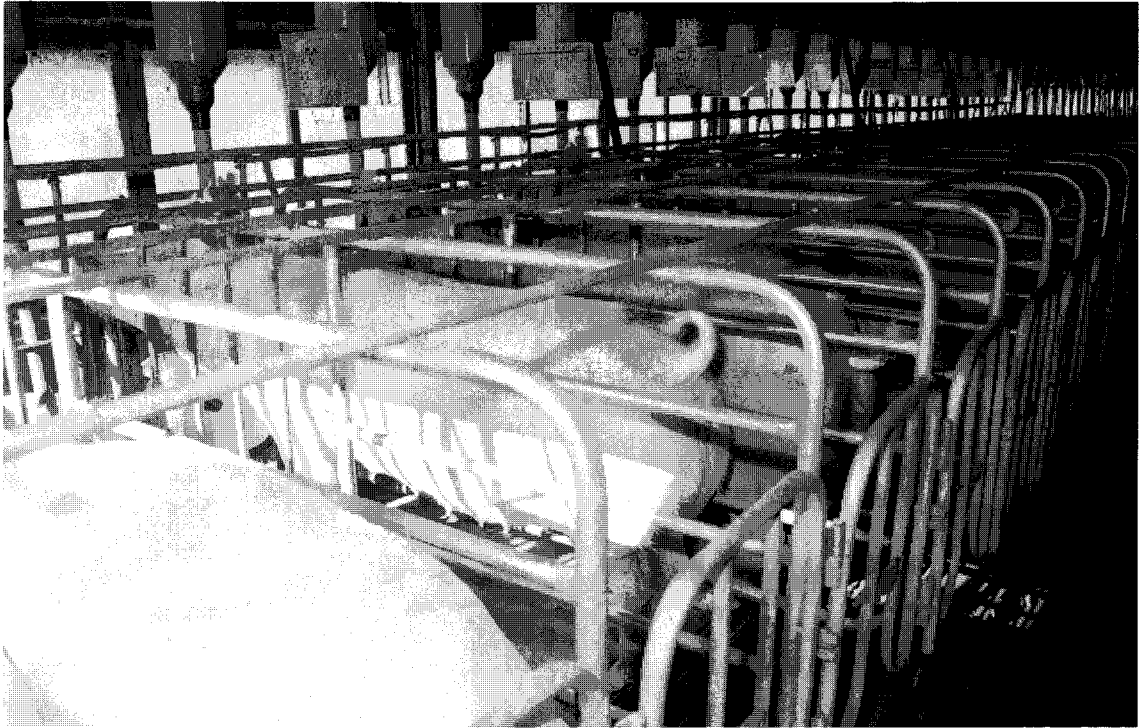
이탈하는 양돈농가들의 특성을 보면 많은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생산비가 높고, 낙후한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확대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할 노령이고 농장을 이어받을 차세대가 없다.

양돈단지조성 79개소와 계열화 17개소 등 양돈사육기반을 조직화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체제의 구축이 시도되었으나 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양돈단지 79개소에서 933천두(10.3% 점유), 계열화 17개

소에서 1,111천두(12.3% 점유), 품질개선 40개소 1,923천두(27.1% 점유)를 사육하는 등 생산기반 조성, 사육시설 현대화, 규격돈 생산지원, 도축·가공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약 1조4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구제역 발생 전까지 수출중심 산업으로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수행의 결과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수출선도 품목으로 부상하여 돼지고기 수출은 1998년 88.3천톤, 1999년 80.2천톤이었고, 2천년대 수출목표량을 200천톤으로 설정하여 축산정책의 역



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돼지고기 산업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전개에 반하여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으로 전략하고 있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돼지고기 수입이 1998년 55.6천톤에서 2002년 71.0천톤으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일본, 소련연방, 미국, 멕시코, 홍콩 다음 6번째 대량 수입국이며, 미국에게는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다음으로 7번째 수출 대상국이 되고 있다.

1999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된 이후 돼지고기 수출량이 2002년에는 25천톤에 불과하였고 2003년에

돼지콜레라 발생의 확산으로 수출산업으로 명맥을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 돼지고기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 수출중단과 생산과잉

기존 돼지고기 수출정책으로 사육두수 증대 및 품질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에 따라 수출부위가 내수 시장에 유입되어 돼지고기 과잉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의 심화는 물론 돼지가

격의 폭락이 장기화되는 등 양돈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연도별 돼지 도축두수는 1997년 10,918천두, 1999년 12,565천두, 2000년 13,293천두, 2002년 15,338천두로 1999년에만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 2002년에는 1997년 대비 40.5%의 높은 도축증가율을 보였고, 2003년 4월까지 누계 역시 년월 대비 20.2%, 전년 대비 21.0%나 크게 증가한 것은 돼지고기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1997년 630.6천톤에서

2002년 785.3천톤으로 24.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1인당 소비량은 15.3kg에서 17.0kg로 11.1%의 증가율로 소비증가 추세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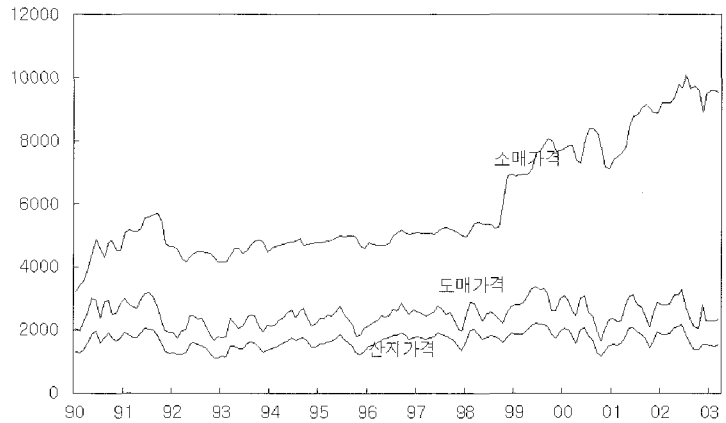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량 80천톤(안심, 등심 위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80만두를 도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시 사육두수 235만두에 해당된다. 235만두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율이 11.2%이기 때문에 총모든 수의 28%에 해당하는 약 263천두의 모돈이 과잉되어 사육두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3년 3월 현재 총 마리 수가 전년동기보다 3.5% 증가한 9,027천두와 모든 역시 전 분기보다 2.6%, 전년동기보다 2.8%가 증가한 985천두의 생산기반은 돼지고기의 과잉생산체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화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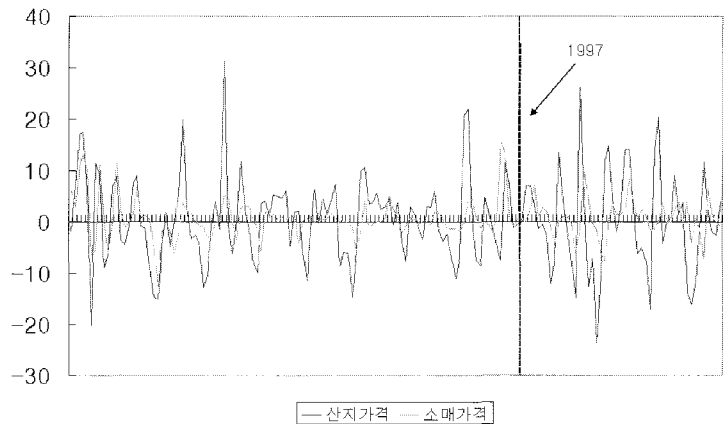
돼지고기 산업은 수출중단으로 내수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돼지고기 소비수요의 획기적인 창출이나 사육두수의 감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돼지고기의 과잉공급은 돼지가격 파동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원/kg

<그림 3> 돼지 산지, 도매, 소매가격변동추세 (1990.1-2003.3)



<그림 4> 돼지가격 월별증감율추세 (1990.1-2003.3)



4.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한 가격변동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80천여톤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내수전환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원리이다.

폭락된 돼지가격이 회복되

지 않는 한 부채가 많아 재무상태가 부실한 양돈농가들이 파산에 직면하여 양돈업을 떠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동안(1997. 12~2002. 12)의 가격변동율을 보면 돼지가격은 13.9%,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91%로 돼지가격 대비 6.5배나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그림 3>

전월대비 월평균 가격변동율(1998. 1~2003. 3)은 돼지고기 가격은 0.37%이고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1.12%로 3배나 더 높은 플러스(+) 변동을 하여 소매가격이 폭등하고 연동 지양적인 현상이 극심함이 입증되었다.<그림 4>

유통단계별 가격분산은 1997년 1월 산지 18.7%, 도매 27.5%, 소매 53.8%이었고 2003년 2월에는 산지 11.2%, 도매 17.1%, 소매 71.1%<그림 3>로 돼지고기 생산의 산지와 도매 단계는 크게 하락한 반면에 소매단계는 오히려 폭등하여 돼지고기 소비수요 신장과 소비기반 확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돼지고기 가격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

양돈농가들이 경쟁력이 있는 입지를 확립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개발된 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규모의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돼지생산의 현대적 시설

체계를 갖추고,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야 한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물론 경영능력 제고로 위기관리 능력(사료비 통제, 분류손실 최소화, 비육용 돼지 조절로 사료손실 최소화, 출하시기 결정 준수, 한계생산력의 번식용 돼지의 일부 혹은 전부 퇴출, 검증된 신기술 도입, 자금의 유통성 확보, 사료비 비목의 철저한 점검으로 비용 절감 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또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의 전면 중단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며, 청정을 인정받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돼지고기 선진 수출국들에게 이미 점유당한 수출시장을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이미 수차례 제안한 바와 같이 내수위주와 균형소비로 양돈경영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자생존(適者生存)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규모확대를 위하여 단지화, 집단화, 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체계 구축, 시설자동화를 갖춘 가

족노동중심의 전업화,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 혹은 집단화 체제의 전개,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양돈농가들의 새로운 입지확립에 부응하여 양돈산업은 ①21세기 양돈산업의 새로운 모형정립, ②품질·규격의 통일화 및 품질향상, ③정시 정량으로 출하, 생산비 절감 실현, ④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식육처리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추적시스템을 도입·강화), ⑤축산분뇨의 자원화(자원순환·친환경 기능의 유지), ⑥질병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 ⑦수입축산물의 재고관리와 수출입 종합컨설팅, 수출입 관련 국제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전문기구 설치에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양돈**